

간병일지

■ 간병근무일자 : 2025년 11월 5일

※ 간병 일(日) 단위로 기록

환자성명	의료기관	병실호수	입원날짜	간병인명
김수연	무이재한방병원	304	2025년 10월 21일	육사랑
자가 보행		음식 경구 섭취		체내 관 삽입
가능		가능		
시간	간병 내용			
00시 ~ 01시	병실 내 취침하였습니다.			
01시 ~ 02시	병실 내 취침하였습니다.			
02시 ~ 03시	병실 내 취침하였습니다.			
03시 ~ 04시	병실 내 취침하였습니다.			
04시 ~ 05시	새벽 방사부위 열감 및 통증으로 인해 기상. 알로에겔 및 처방연고 발라주고 아이스팩으로 5분간 마사지 후 10분 휴식. 이후 숙면 확인 후 병실 내 취침하였음			
05시 ~ 06시	병실 내 취침하였습니다.			
06시 ~ 07시	병실 내 취침하였습니다.			
07시 ~ 08시	아침 식사 시간 맞춰 기상. 소금물 제조 후 환자 깨움. 소금물 가글 보조 및 화장실 이동 도운 뒤 환자 식당까지 배움. 병실 복귀하여 침구 정돈 후 대기하였음			
08시 ~ 09시	병실 대기 중 환자 식사 종료 시간 맞춰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자 픽업, 외부 복도 10여분 산책 후 병실 복귀하여 양치 보조. 이후 환자 휴식 진행하였음.			
09시 ~ 10시	환자 휴식 중 다리 저림 호소하여 마사지 및 전체 스트레칭. 그리고 어깨 재활운동 3회 2세트 진행하였음. 이후 휴식하는 동안 따뜻한 물 및 정수 보충함			
10시 ~ 11시	아침 회진 후 환자 휴식하는 동안 병실 내 대기하였음			
11시 ~ 12시	2층 이동하여 식사 전 산책 진행. 10분 산책 후 5분 휴식 3세트 진행 후 50분 병실 복귀하여 식사 전 휴식하며 종아리 마사지 하였음			
12시 ~ 13시	식전약 제공. 점심시간 맞춰 식당 이동 후 환자 음식 배급 및 식기 반납 절차 전부 대리 진행하였음. 식사량 여전히 방사 이전보다 떨어진 상태이나, 익힌 구황작물 외에도 간이 센 음식은 비교적 잘 먹는 듯함. 식욕 저하보다 속 울렁거림이 더 심한 듯			
13시 ~ 14시	환자 요청으로 뜨거운 물 및 가습기 물 보충 하였음			
14시 ~ 15시	환자 가슴부위 열감으로 알로에겔 및 처방 연고 바름. 아이스팩 교체하였음. 지속되는 열감에 온수매트 온도 조절하였음			
15시 ~ 16시	환자 2층에서 산책 및 휴식 진행하는 동안 병실 환기 및 침구 청결관리 하였음. 이후 환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픽업하여 복귀. 발 지압 마사지 하였음. 환자 요청 따라 생강차 한 잔 따뜻하게 제조하여 제공하였음			
16시 ~ 17시	저녁 전 속 울렁거림 호소하여 손 지압 마사지 및 등 마사지 진행하였음. 소금물 조금 진하게 타서 가글 시키고 반 잔 마심. 방사 후유증으로 인한 울렁거림 점점 심화되는 중. 아이스팩 손수건에 싸서 계속 가슴 방사부위 대어주자 느끼게 증상 완화되는 듯 함			
17시 ~ 18시	저녁 시간 맞춰 환자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움 후 병실 복귀하여 침구 정돈 후 대기하였음.			
18시 ~ 19시	운동량이 과하게 는 것이 아닌데도 지속되는 종아리 통증. 다시 재 마사지 진행하고 발 지압 진행. 추가 베개 제공받아 무릎 밑에 대어주고 미리 챙겨온 전기방석으로 다리 부분에만 온기 제공함			
19시 ~ 20시	환자 휴식 하는 동안 병실 내 대기하였음			
20시 ~ 21시	환자 답답함 호소하여 병실 외부 짧게 10분 산책 후 복귀. 이후 2층으로 내려가 외부 정원에서 잠깐 앉아서 손 지압 진행하다가 병실 복귀하였음			
21시 ~ 22시	환자 병실 복귀 후 냉장고에서 차게 식힌 알로에겔로 방사부위 추가 마사지 진행. 아이스팩 교체. 이후 병실 내 대기하였음			
22시 ~ 23시	22시 17분 환자 취침 확인. 48분 병실 내 취침			
23시 ~ 24시	병실 내 취침하였습니다.			

(기타 간병 관련 특이사항)

울렁거림 및 식욕 저하 늘어감. 간이 센 음식은 그나마 잘 먹는 걸 보니 식욕저하보다 울렁거림이 더 심한 듯. 몸 온도를 차게 해주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환자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감기 걸릴까봐 걱정됨.

※ 손해보험협회 권장 양식

위 사항(작성 내용)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자(간병인) : 육사랑 

작성일자 : 2025년 11월 21일

주식회사 도원 대표이사

